

# 지자체 합동평가 9년 연속 전북 1위

### 남원시, 65개 정량지표 100% 달성 쾌거... 최고 수준 행정 역량 입증

남원시가 2026년(202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하며, 9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남원시는 지난 2018년부터 전북 1위의 성과를 한해도 놓치지 않았으며, 특히 올해는 65개의 정량지표를 100% 달성하는 기록을 세우며, 최고 수준의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종합평가로 국가 주요정책, 국가 위임사무, 국가 보조사업 등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행정안전부가 17개 광역시·도를, 전북자치도가 14개 시군을 평가하며, 복지, 환경, 안전, 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 분야(65개 지표)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등 65개 모든 국정지표를 달성했다.

또한, 우수사례 중심으로 평가한 정성평가 분야(8개 지표)에서 시부 1위에 선정되며,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해

남원시가 펼친 정책들이 차별성과 효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부단체장 주재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지표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 방안을 수립하는 등, 평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전 직원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이번 평가 결과로 시는 재정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표별 추진상황 점검과 부서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초여름 꽃정원 새 단장

### 임실군, 여름철 경관조성 완료

세계적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한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이 본격적인 초여름을 맞아 다채로운 여름꽃 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임실군은 옥정호 출렁다리와 연결된 붕어섬 생태공원의 여름철 경관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에는 다일리아와 산파체를 비롯해 부겐베리아, 리시안서스, 숙근베나, 제라늄 등 30여 종의 다양한 화훼류가 식재돼 이국적이면서도 풍성한 정원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조성한 1,700㎡ 규모의 '세계적 정미원'은 붕어섬의 대표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5월, 16개 품종 3,900주의 정미



식재를 완료했으며, 안정적으로 활착한 장미들은 오는 7월 초부터 본격적인 개화를 시작해 화려한 정미정원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원 곳곳을 수놓고있는 수국 군란도 또 하나의 볼거리다.

산수국과 원예수국, 목수국 등 총1만 4천본이 식재돼 6월 초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꽃길을 연출한다. /임실=진출영 기자

#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 공약사업보고회 개최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최용택)는 18일, 공약사업보고회(1차)를 개최하고 양측모 당사인의 주요 공약에 대한 추진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의료·복지·청년분과와 기획·홍보·행정·교육분과 소관 부서장들이 참석,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공약 사업의 추진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기대효과 등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이행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인수위는 사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 일정, 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연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농생명산업 육성,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등 민선 9기 핵심 정책과제와 연계한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8~19일 1차 공약사업보고회를 통하여 공약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쟁점 사항을 검토한 후, 보완·고도화 과정을 거쳐 24~25일 개최되는 2차 공약사업 보고회에서 공약 이행계획의 실행력과 완성도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 기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 공보담당은 18일,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이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노암산업단지 및 광치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입주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양충모 당선인은 간담회에 앞서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부터 주

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한미양행(한미화장품) 대표와 간담을 갖고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과 기업 현장에 대해 의견을 내었다.

이어 진행된 기업인 간담회에서는 노암산업단지(25개 기업)와 광치농공단지 입주기업(17개 기업), 사매산단단지 입주기업(2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력 수급 문제와 기업 지원 정책, 판로 확대, 산업단지 기반 시설 개선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은 지난 17일 오후 7시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관내 초·중·고 학생이 자녀를 둔 학부모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 학원비 지원사업 공감대 넓혀

### 최영일 순창군수, 학부모 간담회 갖고 소통 나서

순창군이 민선 9기 핵심공약인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앞서, 학부모들과 직접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군은 지난 17일 오후 7시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관내 초·중·고 학생이 자녀를 둔 학부모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민선 9기 공약사업 세부사업 설계에 앞서, 정책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학부모들에게 사업 취지와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군민이 깊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순창군은 관내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교과뿐만 아니라 예체능 및 자격취득 학원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1인당 월 10만 원씩 정액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저소득층과 다자녀(3자녀) 가구에 집중되던 혜택의 문턱을 낮춰, 자녀 수와 관계없이 순창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보편적인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검토 중인 만큼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체 확대 방

안에 대한 실효성과 학부모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안을 다듬어 갈 계획이다.

이어진 소통의 시간에서 최영일 군수는 약 70분간 격식 없이 학부모들의 질문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답변을 이어갔다.

최 군수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읍·면 지역의 학원 인프라 부족 문제나 기존 저소득층·다문화 가정 지원사업과의 중복 우려에 대해서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제도와 면밀히 연계하고 부족한 부분은 꼼꼼하게 보완하겠다"며 신뢰감을 주었다.

이어 "본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사업으로 임기 내내 지속 가능한 순창군의 대표 교육 복지 제도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아이들은 마음껏 꿈꾸고, 부모님들은 교육 걱정 없이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창군은 오는 2027년 사업 시행을 목표로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학원비 지원사업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체납관리단,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 '특독'

남원시 체납관리단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특출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100만 원 미만 체납자 5,04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태조사를 진행, 688 명으로부터 7천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분담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러한 징수 성과 뒤에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따뜻한 행정이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체납관리단은 장기지방세 체납자인 A씨를 방문 상담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생활고와 건강 악화 사실을 확인,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계유지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체납관리단은 즉시 관련 부서와 연계해 A씨가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 상담을 받도록 돕는 한편, 분할납부 방안을 마련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추진

순창군이 18일 순창읍 장애인체육관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첫 행사가 열린 이날 현장에는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의료진과 보건 전문 인력들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부터 양방 진료, 구강 검사, 검안 및 돋보기 맞춤 서비스까지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참여한 주민들은 1인당 약 10만 5천 원 상당의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았다.

한편, 순창군은 주민들의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찾아가는 맞춤형 이·미용 서비스 추진

임실군이 고령이나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 5일 대한미용협회 임실군지부 소속 관내 27개 미용업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외상 환자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이·미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낸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이나 중증 질환, 외상 등으로 외출이 전연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위생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기 재가 생활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동참한 27개소 미용업소 영업주들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커트, 염색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임실=진출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외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유현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A)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이 놓였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킁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